

대학원생인 나는 학비와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남녀노소 늘 애용하는 저가 총알배송 서비스를 위해 부단히 일 한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늘 기다려지는 총알배송 택배는 정말 설레다. 그러나 나는 그 택배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진다. 그 택배 포장지는 당연하지 않는, 아니 당연할 수 없는 엄마의 땀이 젖어있기 때문이다.

물류센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출근 저녁퇴근’이라는 삶의 평범한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일터이다. 대부분 1년 365일 24시간 분주히 돌아가는 곳이고 옛날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기 불렀던 민중가요 ‘사계’의 가사인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를 연상케 하는 곳이다. 다만 차이라면 미싱이 레일로 바뀌었을 뿐.

물류센터라면 보통 ‘힘을 많이 쓰는 육체노동 종사자 택배 아저씨’ 또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힘쓰는 직업’으로 당연히 건장한 성인 남성과 연결짓는 성고정관념이다.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근무배치를 할 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공정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투입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고정관념과는 다르게, 나는 물류센터에서 처음으로 일했던 날 적잖이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물류센터에서 일반적인 편견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성고정관념이 작동한다. 여성들은 보통 포장업무로 배치가 많이 된다. 포장업무는 물류 전체 공정에서 가장 힘을 적게 쓰는 곳이다. 반대로 물류의 마지막 단계는 허브(HUB)는 전체 공정 중 가장 힘든 곳인데 내 경험 상 여기에서는 남자가 70~80%정도 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늘 남자 직원들은 &여자들은 늘 편한 포장일만 하고 힘든 건 다 남자가 시킨다.&라는 불만을 터뜨린다. 그러면 이들의 생각대로 물류센터는 ‘여자’가 꿀빨 수 있는 노동환경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업무 수칙에 답이 있다. 물류센터에서 적재기준 높이는 170cm이다. 성인 남자 평균 키는 170 이상이지만 대부분 여성의 키는 160 초중반이다. 남자가 이런 적재공간에서 일하면 문제가 없지만, 160인 여성이 일하면 자신의 키보다 높은 적재물건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는 곧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어지고 충돌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이뿐만 아니다. 내가 일하는 공정은 거의 다 남자 일용직이 맡는데 남자는 일하면서 15분의 쉬는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여자 포장인원에게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합쳐서 75분을 쉰다. 대략 저녁 7시 반 근무 시작 후 퇴근 새벽 1시까지 일체의 쉬는 시간 없이 오로지 서서 일한다. 따라서 당연히 무지외반증이 올 수밖에 없다. 즉, 물류센터 업무 체계가 대부분 ‘힘 좋은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다. 또한 불안정한 일용직 고용 상태와 최저임금, 육체적 고통 여러 고충은 남녀 모두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점이 내가 총알배송 택배를 보고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다. 사회적으로 누구나 체감하지만 여태껏 언급조차 안된 비정규직 경단녀 여성들. 이들은 임신, 출산, 육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이들의 울분이 유령처럼 떠돌아 최후 도착지가 바로 물류센터다. 그러나 이들의 울분이 해소된 댓가로, 경단녀 여성은 가혹한 노동조건(육체적 고통, 새벽근무,

고용불안, 저임금)을 짊어져야 한다. 출근하지 말라고 엉엉 우는 5살 아들에게 저녁을 못 차려줘서 미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 물류센터 출퇴근 셔틀버스에 타는 엄마의 서러움은 바로 택배 포장지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평범한 존재이지만 이들의 노동 땀방울이 십시일반 모여서 이루게 된 거대한 총알배송 서비스. 누구나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하는 이 서비스는 경단녀 엄마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제는 사회가, 국가가, 우리가 이들의 노고를 따뜻하게 치유해야 할 때이다.